

제공일자	2014. 11. 5(수)	담당자	오승연 연구위원
홍보담당	변철성 수석(02-3775-9115)	연락처	02-3775-9036
			총2매

제목 : 가계의 금융자산 중 연금 및 보험 자산의 비중이 높아지고, 고령 가구의 금융자산 규모와 비중이 증가 추세

- 보험연구원(원장 강호)의 오승연 연구위원은 『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와 시사점』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음(계간 보험동향 2014년 가을호 테마진단).
- 최근 우리나라 가계의 금융자산 중 연금 및 보험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주식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음.
 - 한국은행의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말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8.9%로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.
 -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도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이 유동화, 안전화 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음.
- 이러한 가계 자산구성 변화의 중요한 요인으로 고령화와 글로벌 금융 위기를 들 수가 있음.
 - 기대수명 증가와 독신 가구의 증가 추세는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, 가계는 이에 적합한 방식으로 자산을 구성할 것임.
 - 금융위기 이후 시장의 불확실성 증대 역시 가계의 위험기피 성향을 변화시켜 금융자산 구성에 영향을 미침.
-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가구의 연령별 자산 구성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*, 60세 이상 고령 가구의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.
 - 금융자산의 규모가 정점에 이르는 연령대가 50대 초반에서 60대 초

반으로 10세 정도 늦춰지고, 금융자산의 비중도 60대 이상 가구에서 다소 높아졌음.

- 하지만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여전히 총자산 중 실물자산의 비중이 높은 수준임.

* 2000~2012년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해 분석함.

- 2008년 금융위기 전·후로 가계의 금융자산 구성을 분석한 결과**, 보험자산의 비중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.
 - 현금 및 예금 자산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다 2008년 감소한 후 다시 증가하고 있는 반면, 주식 자산의 비중은 2008년 이후 감소하고 있어 정반대의 추이를 보임.
 - 장기적으로 위험기피 성향이 큰 고령인구 비중의 증가는 위험자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.

** 노동패널에서 조사하는 주식자산에는 채권과 신탁이 포함됨. 보험자산은 불입총액으로 저축성 보험만을 조사하고 있음.

- 금융자산 구성 변화의 주요 요인인 인구 고령화와 가구 구조의 변화는 보험산업에 있어 수요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.
 - 고령화로 보험핵심 구매 연령대인 30~40대 인구비중이 점차 감소되고 있어 보험산업의 성장성이 둔화될 수 있음.
 -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 가구와 고령 가구 비중의 증가는 소득 보장 보험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.
 - 기대수명의 증가와 불충분한 공적연금으로 인해 연금과 저축성 보험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.

첨부 : 테마진단 “가계의 자산 포트폴리오 변화 추이와 시사점”. 끝.